

# 이슬람 국가에서 핀 자비의 연꽃

### 자제공덕회 말레이시아 지부, 수재민 돕기 나서

이슬람을 국교로 삼은 말레이시아. 이곳에서 연꽃이 수놓아진 카키색 조끼를 입은 일군의 봉사자들이 이재민을 도우며 선군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Malaymail〉지는 1월 13일(현지시간) “자제공덕회(Buddhist Tzu Chi) 말레이시아 지부 회원들이 마넵 우라이 라마(Manek Urai Lama) 수해 지역을 방문, 이재민을 위로하고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를 함께 치웠다”고 보도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지난해 말 사상 최악의 폭우로 켈란탄 등 5개 주 곳곳에서 침수 사태가 일어나 9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20만여 명이 대피하는 등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은 켈란탄 주였다. 켈란탄의 주도 코타바하루에서는 일부 하천이 범람하면서 37곳의 도로가 끊기는 등 도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고, 대피 인원 역시 가장 많은 3만2343명이었다.

다른 지역 역시 테랑가누 2만8900여명, 파항 2만4300여명의 사람들이 대피했고, 북서부 페라크와 보르네오섬 북동부 사바, 서부 최북단 페를리스 주 등지에서도 대피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마넵 우라이 라마 지역은 코타바하루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설명한 코에이(Koay) 씨는 “도움의 손길에서 소외될 수 있는 이곳에서 이재민을 돕는 게 바로 불자의 도리”라며 “오늘의 봉사가 내일의 인연



대만 자제공덕회 말레이시아 지부 회원들이 마넵 우라이 라마 수해 지역을 방문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 9만명 이재민 발생

### 500여 봉사자들 외바퀴 수레 끌며

### 침수 가옥 진흙더미 치워

### “불교의 참모습 생각하는 계기 돼”

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에이 씨는 마넵 우라이 라마 지역을 방문한 자제공덕회 말레이시아 지부 회원들이 이끌고 있다.

〈Malaymail〉지는 코에이 씨의 말을 인용, “자제공덕회 말레이시아 지부는 이번 수해를 맞아 500명의 청·장년층 회원들이 19회의 봉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으며, 매 회마다 7대의 트랙터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자제공덕회 말레이시아 지

부는 자원봉자를 20개 그룹으로 편성, 5개 주요 수해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Malaymail〉지는 “이들은 이재민들에게 성금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직접 외바퀴 수레를 끌고 다니며 침수 가옥의 진흙더미를 치우고, 거리 곳곳에 뒤엉켜 있는 가재도구를 정리·세척하는 등의 노력도 마다하지 않는 등 이재민의 아픔을 나누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해를 당했을 때 다시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는 이재민 말릭(Malik·31) 씨는 “종교가 다른 이들의 직접적인 도움의 손길은 생각하지 못했다”며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 마을은 점차 이전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성금도 우리를 돕는 데 요긴하겠지만, 사람의 따뜻한 손길만큼은 아니다”고 말하는 이재민 하산(Hasan·28) 씨는 “우리와

같이 수마의 흔적을 치우는 모습을 보면서, 낙담은 떨치고 희망은 품을 수 있었다”며 “이제는 흰색 반바지에 카키색 조끼를 입은 자제공덕회 봉사자만 보이도 삶의 길이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제공덕회는 청엔 스님이 ‘불교의 인간화와 보살의 세계화’를 목표로 1966년 대만에서 설립됐다. 현재 40개 국가에 231개 지부를 두고 수백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확보, 자선 의료 교육 문화 등 4대 분야에서 봉사하고 있다.

“아픔을 나누는 데 ‘동체대비’ 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는 탕벡(Tang Beng·54) 씨는 “우리의 스승 청엔(Cheng Yen) 스님은 항상 ‘돈보다는 사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마넵 우라이 라마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청엔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탕벡 씨는 자제공덕회 말레이시아 지부의 의료단을 이끌고 있는데, 이번 봉사에는 동료 의사 5명과 간호사 6명과 함께 했다.

〈Malaymail〉지는 “자제공덕회 말레이시아 지부는 2000년에서야 설립되었는데, 전 국민의 55%가 이슬람교도인 말레이시아라는 점을 비출 때, 늦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전하고 “이번 대규모 봉사활동은 말레이시아 사회에서 ‘자제공덕회’의 역할 나이가 불교의 참모습을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는 홍수 피해가 늘어나자 긴급 복구 예산으로 약 5천만 링깃(157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섰고, 현재까지도 피해 복구에 전력하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 순직 중국계 류 경관 불교식 장례로

### 미국 브루클린서... ‘경관장(葬)’에 이어



美 뉴욕 브루클린서 1월 4일 열린 웨지안 류(Wenjian Liu) 경관 장례식 모습

20대 흑인 청년의 총에 숨진 중국계 웨지안 류(Wenjian Liu) 경관의 장례식이 중국계 스님들의 집전으로 지난 4일 열렸다. 수천여 명의 NYPD 소속 경관이 뉴욕 브루클린 거리를 메운 가운데 마련된 ‘경관장(葬)’에 이어 불교장례식도 함께 진행된 것이다.

지난 달 순찰 근무 중 흑인의 기습 총격을 받아 사망한 류 경관의 장례식은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과 경찰에 대한 총격으로 전국적 이슈가 되면서, 관심을 끌었다.

한편 장례식에 참가한 일부 경찰들은 빌 드블라지오(Bill de Blasio) 뉴욕시장 이 추모사를 시작하자 등을 돌렸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비무장 흑인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을 비난하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 입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고 유화적 태도로 대응해 경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 프란치스코 교황, 스리랑카 사원 방문

### 마지막 일정 바꾸고 불교 사리탑 의식 참관



스리랑카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1월 14일(현지시간) 수도 콜롬보 시내 아그라슈라바카 불교 사원을 방문해 불자들과 손을 잡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스리랑카 불교사원을 방문해 눈길을 끈다.

AP통신에 따르면 스리랑카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1월 14일(현지시간) 스리랑카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바꿔 수도 콜롬보의 한 불교 사원을 방문했다. 교황은 사원에서 경의를 표하고 부처님의 제자 2명의 사리탑을 공개하는 불교 의식을 참관했다.

바티칸 측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수도승이 의식을 진행하는 동안 귀 기울여 경청했다”고 전했다.

교황청 대변인 페데리코 롬바르디는 “교황이 다른 사원 방문자들이 하는 대로

신발을 벗었지만 기도를 하지는 않았으며, 막판에 갑자기 결정된 일어서서 방문 시간은 매우 짧았다”고 말했다.

불교에서 사리탑은 1년에 한 번 공개하며, 신도들은 존경을 표하고자 며칠 동안 줄을 선다.

아그라슈라바카 사원 주지인 바나갈라 우파티사 스님은 전날 콜롬보 공항 환영 행사에서 교황을 만나 초청했으며, “우리가 교황에게 표할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84년 태국을 방문했을 때 불교 사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이나은 기자

# 일본 사원서 고양이 ‘마케팅’ 한창

### 고양이 보려는 관광객 증가... 사원 재정 증가로 이어져

일본의 사원에서 ‘고양이 마케팅’이 한창이다.

〈Japan Today〉지는 “버려진 고양이들이 새로운 삶을 찾고 있는 사원이 있는 가하면 행운을 불러오는 고양이 마네키 네코(maneki neko)로 경내를 가득 메운 사원도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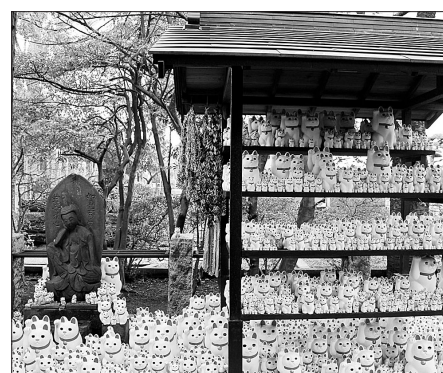
이들 사원은 키티 사원(kitty temple)으로 알려진 고탄조(Gotanjo) 사원과 마네키 네코 사원으로 알려진 고토쿠지(Gotokuji) 사원이다.

〈Japan Today〉지는 “고탄조 사원은 버려진 고양이를 거두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고토쿠지 사원은 행운을 불러오는 고

양이 인형을 경내에 세우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고 전하고, “최근에는 두 곳의 사원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사원 재정에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과 고양이의 관계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000여 년 전에는 이미 상류 계급의 반려동물이었고, 뒤이어 일반 서민들의 삶에도 깊숙이 들어오면서 ‘행운을 부르는 동물’로 여겨졌다. 이후 일본 각지에서는 고양이를 신으로 모시는 신사도 생겨나고, 민간 신앙의 일부로도 자리매김하게 됐다.

“사원에서 고양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벌써 바람이 이루어진 것 같다”고 말하는 관



행운을 불러오는 고양이 마네키 네코로 경내를 가득 메운 고탄조 사원(사진 왼쪽)과 버려진 고양이들이 새로운 삶을 찾고 있는 고토쿠지 사원의 모습(사진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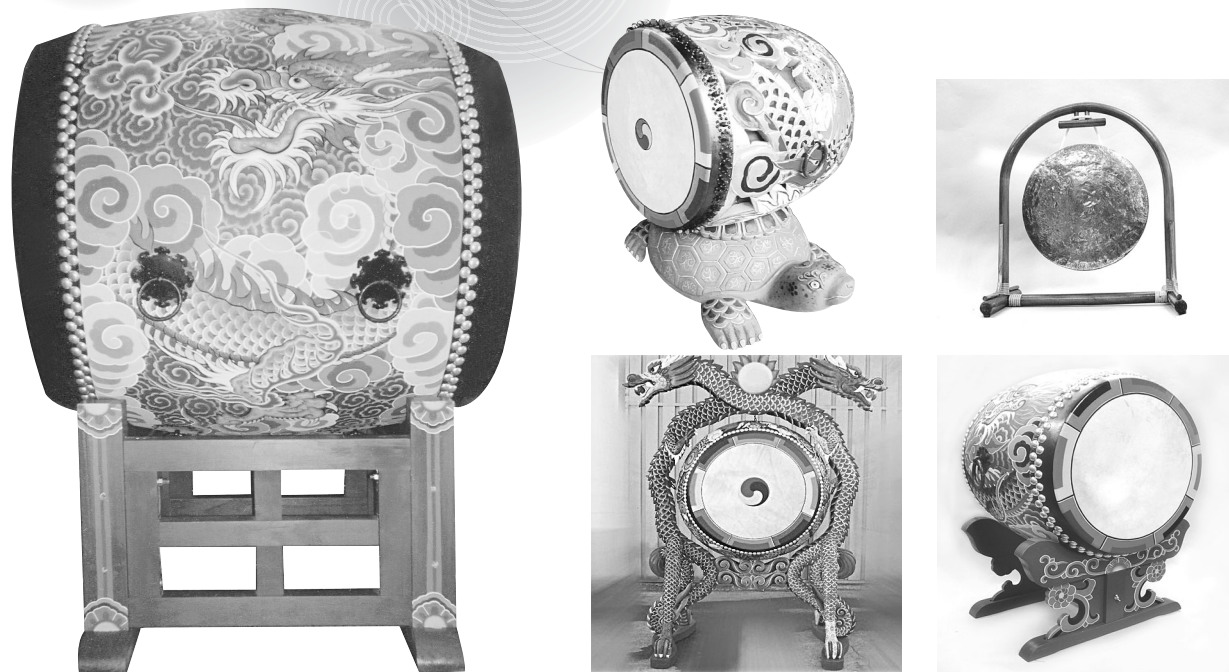
광객 요시모토(Yoshimoto·54) 씨는 “사원 스님들이 불교와 얽힌 재미있는 고양이 관련 설화를 들려주는 것도 좋고, 평온한 모습으로 경내를 기웃거리는 고양이 모습



도 좋다”며 “집에 들어가서도 이곳의 고양이들이 떠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요시모토 씨는 일본 가코시마에서 ‘키티사원’을 방문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양지국악사

###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 사) 영남범음범패 연구보존회 제 13기생 학인모집

사단법인 영남범음범패연구보존회에서는 신라의소리 영남범패의식을 6개월과정으로 탁마할 학인스님을 모집하여 개강하고자 합니다.

아 래

- 자 격 : 식발염의한 스님 (일반불자 제외)
- 개 강 일 : 2015년 3월 9일(음력 1월 19일 월요일) 오후 3시
- 매 주 월 · 목요일 오후 3시부터 강의합니다. (주 2회)
- 장 소 :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86번지 화장사(진영포교당)
- 과 목 : 초급반 - 예경의식(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각단예불 등)  
중급반 - 사시불공, 49재및 천도재의식, 관음시식, 사물다루는법  
상급반 - 바라 및 착복무(오공양 작법), 사물다루는 법
- 강 사 : 한파스님(학장스님께서 직접 내외전 강의하십니다.)
- 보조강사 : 수암스님(010-5488-7060)

※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055)343-2267~8700

## (사단법인) 영남범음범패 · 연구보존회